

협회 신임 임원진 프로필

김규중회장



58년생으로 전북부안에서 출생하여 77년도 건국대학교 축산학과 입학, 85년도 졸업했다. 졸업후 사료업체에 입사하여 96년까지 12년간 사료회사에 근무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료업계에서 매사 업무처리가 쫓쫓하다는 평을 받았으며 96년도 사료 위탁 생산판매업체인 신농상사를 일산 신도시에 설립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에는 오리사육과 관련한 신농오리영농조합을 충북 음성에 설립하여 8천평의 농장에서 종오리 및 육용오리 5만 수 규모를 운영중에 있다.

이영희 사육분과 부회장



58년생으로 대구광역시에서 출생하여 영남대 병설 공업고등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양계농장인 풍진농장을 설립하여 축산업에 입문했다. 94년 온양유통을 설립하여 오리 업계과 인연을 맺었으며 99년 충남지회 지회장을 맡아 지회활성화에 기여했다. 모든 일에 추진력이 강하고 딱부러진 성격으로 업무처리가 깔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현재 신농오리영농조합을 공동설립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사료위탁점역시 운영하고 있다.

이병선 부화분과 부회장

42년생으로 전남 광주에서 출생하여 한평생을 오리업에 종사해온 오리맨이다. 지난 92년도 협회설립당시 발기인으로 활동하며 광주전남도지회의 분신인 호남지회 지회장을 역임했다.

96년 부화업에 입문하여 현재 주당 5천수 내외의 새끼오리를 생산하고 있으며 업계에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발이 넓다.

매사에 원리원칙을 중요시하고 바른말을 잘한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인간미가 넘쳐 손해보는 일이 많은 것이 흠인 것으로 지적된다.

남승희 유통분과 부회장



58년생으로 충남공주에서 출생하여 서비스업에 종사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사업이 기울어 92년에 경기도 양평에서 오리 유통업을 시작으로 업계에 입문했다. 유통업을 시작한지 5년뒤인 97년도 현재의 양평읍 양근리 도축장부지에 들어가 사업을 확장했다. 오리위탁사육을 통한 부분 계열화사업

을 하고 있으며 일일 2천수 내외의 오리를 작업하여 소매 및 도매유통업에 종사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99년도 입문하였으며 술을 아무리 마셔도 아침일찍 일어나 작업장에 들어갈 만큼 체력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다.



오 의 권 토종오리분과 부회장

58년생으로 충남 당진에서 출생하여 서울 춘천등에서 수학했다. 강원도에서 오랜동안 자연농법 및 무공해 농산물 생산에 연구한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난 92년부터 현재의 농장인 평택시 고덕면에서 토종오리를 사육하면서 오리에 입문했다. 당초 소,돼지 등을 자연농법을 통하여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농장을 시작했으나 유향오리에 심취하면서 토종 오리 및 재래종 흰오리를 이용한 유향오리 생산에 전력하고 있다.

현재 황토와 여러 가지 원료를 이용하여 유향오리 사료를 직접 만들어 1천2백평의 축사에서 1만수의 유향오리를 직접부화하여 사육하고 있으며 95년부터 유향오리에 대한 전문 연구를 진행할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조 징 경기남부지회장



41년생으로 경북 상주에서 출생하여 83년 공군상사로 예편하여 대전 공군 교육사령부 군무원으로 4년간 재직했다. 이후 86년도 고향인 경북 상주에서 주원농산 종오리 위탁농장을 시작하면서 오리업계에 입문했다.

위탁사육 시작 1년만에 도산하여 오리가 공업체 및 농장등에서 일하다 지난 93년 용인에 자가사육농장을 갖추 육용오리를 자가사육하기 시작했다. 98년에 종오리 사육농장으로 전환하여 매주 5천수 내외의 새끼오리를 생산하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중부지회 만년 총무라고 할 만큼 협회일에 열성적으로 헌신해 왔다. 소탈한 성격이 장점이나 불의를 참지못하는 단점이 있다.



민 철 기 충남지회장

58년생으로 85년도 건국대학교 기계공학 과를 졸업했다. 졸업후 시사영어 동개인사업을 시작한 경력이 있어 89년에 충남 광천에서 2백만원의 자본금으로 재래닭을 시작으로 양계업에 입문했다.

우연하게 91년도 종오리 위탁사업으로 오리업에 입문하여 94년부터 새끼를 자가부화 사육하는 농장으로 탈바꿈했다. 85년에 오리가공판매를 병행하고 필리핀에 육계농장

에 투자해 해외농장까지 설립했다.

2000년 8월에 운용농산 영농조합을 설립하고 대지 1만2천평에서 육용오리 사육 및 종오리 사육, 오리고기 가공판매까지 겸업하고 있다. 오리업계 입문한지 10년만에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업가로 평가를 받고 있으며 오리업계에 가려진 인물이라는데서 크레몰린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정현철 충북지회장

53년생으로 서울에서 출생하여 건축계통에 종사하다 지난 85년도에 충북 진천에서 주원농산 위탁농장을 시작으로 오리업계에 입문했다.

지난 97년 충북 진천에 2천평내외의 자가 사육농장을 건립한후 98년에는 이월면에 6백30평부지에 육가공장을 준공하여 99년부터 오리육가공업 허가를 받아 1일 4-5백수의 오리를 가공판매하고 있다.

오리 부분계열화 사업인 위탁사육을 하고 있으며 오리를 사육한 경력이 있어 유통하면서 사육농가의 입장을 잘 이해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

이덕행 광주전남도지회

57년생으로 전남 영암군에서 출생하여 20년넘게 오리업에 종사하면서 자수 성가한 표본 인물중 한명이다. 지난 97년 광주전남도지회 지회장을 맡아 관련업계 관계자들을 귀함하여 지회를 재 활성화했다고 할 만큼 헌신적으로 협회활동을 해오고 있다. 매사가 분명하고 원칙을 중요시하는 업무스타일로 신용이 좋다는 평을 받고 있으며 97년부터 지금까지 광주전남도지회장을 맡고 있다.

전남 영암에서 오랜동안 사료대리점을 하면서 오리 계열화 위탁사업을 해오고 있으며 지난 99년도 전남 강진군 성전면에 2만여평의 부지에 종오리장 및 부화장을 신설하여 월 10만수 내외의 새끼를 생산하는 부성부화장을 겸업하는 등 사업을 크게 확장해 가고 있다.

경기남부지회

본회 경기남부지회는 지난 3월5일과 4월 11일 각각 월례회의를 통해 2년간 이끌어갈 지회장, 중앙회 이사 및 총무를 새롭게 선출하고 지역별 4개분회를 결성했다.

새로 구성된 임원진은 지회장에 조징 전 총무와 발안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조상희

씨가 추대됐고 중앙회 이사에는 한상룡 전 부회장, 경기 이천에서 1만5천수 내외의 오리를 사육하는 이영승씨가 각각 추대됐다.

경기남부지회의 4개분회는 오산,평택,화성분회, 안성,용인, 신갈분회, 여주,이천,양평분회, 인천,부천,광명분회로 구성되었으며 오산 평택화성분회장은 화성군 동탄에서 사육,유통을 하고 있는 심근황씨를 분회장으로 선출하고 나머지 분회는 분회장은 추후 추대키로 했다.

경기북부지회

경기북부지회(지회장 박한동)는 지난 3월 16일 지회 월례회의를 열어 중앙회 이사진을 구성하고 분회를 3개분회로 각각 구성했다.

중앙회 이사에서 현 지회장을 포함하여 황일구 전지회장 및 일산에서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김농현씨가 각각 중앙회 이사로 추대됐다.

분회조직은 고양김포분회,과주연천분회, 양주포천분회로 각각 구성키로 하고 분회장에는 김농현, 이석호, 배상구씨가 등을 분회장으로 추대했다.

충남지회

충남지회는 지난 3월 6일 지회월례회의를 열어 지회장에 민철기 운용농산대표를 추대하고 중앙회 이사는 현 정기복이사를 유임시키고 민철기 지회장을 이사로 추대했다.

지회의 재정을 총괄할 총무에는 충남 천안에서 오리유통업에 종사하는 고덕농장 고낙봉씨가 총무에 추대됐다.

한편 이날 월례회의에서 충남지회는 지난 1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충남 공주의 조상기씨등 2명의 사육농가에 지회회원들이 거출한 소정의 위로금을 각각 전달했다.

충북지회

충북지회(지회장 정현철)는 지난3월 14일과 4월 16일 월례회의를 열어 충북지회를 활성화하기로 의견을 모의고 지회장에 충북 진천에서 유통업에 종사하는 정현철씨를 지회장 및 중앙회 이사로 추대했다.

지회 업무를 분장할 총무에는 충북음성에서 가공유통업에 종사하는 김만섭씨를 추대하는 한편 그동안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업계종사자들을 적극 협회원으로 가입시켜 지회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16일 개최된 월례회의에는 육용오리, 새끼오리 폭등에 따른 중앙회 차원